

기독교와 현대예술

(H. R. Rookmaaker/김현수 역/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1988)

김지엽

I.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화가나 조각가 등 시각 예술가들을 주 대상으로 전개한 약 90 page 남짓한 소책자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예술의 영역에 두루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 1987년 한국어 판이 출간된 이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인 한스 로크마커는 화란의 Leiden 대학을 거쳐 자유대학(the Free University)에서 미술사 교수로 봉직하다 1977년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저서에 관해서는 이 책의 후반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실재적인 기술이라는데 있다. 대개의 개론서 류가 범하기 쉬운 공소한 이론에

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에 관한 기독교 철학을 실재화 하는데 성공을 보여 주고 있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개략을 장별로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II.

제1장의 주제는 예술에 관한 현대적 딜레마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고 있다. 예술이 현대적인 의미로서 이해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 A.D. 1500~1800 사이의 예술가란 길드(guild)의 구성원으로 본다. 이때에 예술은 주로 어떤 규칙에 의하여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고도의 숙련을 요구했고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일정한 부분이 유지된다. 이후 독창성을 중시하는 예술세계의 구축과 19세기에 이르러 일기 시작한 실재(reality)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면서, 더이상 과거의 규범과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양태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기독교적인 개념의 상실을 불러와 예술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술 자체라고 말하게 된 이유라고 본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주목할만한 사실인데, 종교가 명백하게 규정된 실제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일종의 비종교적 종교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술가와 그 작업들은 점차 전문성을 띠게 되어 현실과 유리된 색다른 표현들만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술의 근본적 위기를 낳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

2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18세기의 내적 방향이 인간이 왕으로 군림하고 돈을 통한 쾌락과 권력이 궁극적 가치로 인정되면서 인본주의적 진입을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이 언약사상을 무시한 일종의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생활이 단지 경건생활로 국한됨으로써 과학, 예술, 경제, 철학, 정치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전자의 경우가 참된 영성을 상실한 세속화의 전형이라 한다면 후자는 현실의 뿌리를 상실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거나 영혼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 인간이 되도록 하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인간다운 능력을 발휘하여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술가들이 단순히 기독교적 하부문화(a Christian subculture)의 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독교 예술가들의 몸부림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겠는데, 저자의 지론은 '통고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로 요약된다. 이는 미가서 선지자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진지하게 외쳤던(미 7:7~11)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기독교 예술과 예술가적 위기적 상황의 진정한 해결과 개혁 의지는 신학적 갱신과 성경적 안목의 강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과업을 논하고 있다. 예술가는 사회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삶을 영위할 만한 가치있는 것으로,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풍요롭고 흥미있는 삶을 만드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각의 필요를 역설한다. 그의 개혁이란 단지 교회의 개혁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가 걸린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독교의 특성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대는 매우 다변화 하고 다원화한 가치 체계가 나타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성분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기타 실질적 도구의 사용으로, 본연적 가치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가의 위치가 단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위대성에 대한 감탄과 성령의 적극적인 나타내심으로 (깊은 의미에서) 기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주체가 기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예술가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술의 의미와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다른 활동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사실 우리는 먹든지, 자든지, 혹은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한 순간들이 종교적 행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단지 전도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될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업한다는 것은, 일을 하되 기독교적 요소라는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명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란 반드시 완전하게 된다는 결론이 없는 작품을 만드는 천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4장에서는 다른 예술가들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18세기의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일종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예술은 아직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실 의미는 존재하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예술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면 예술에 관한 정당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능성이란 사실이 내재하므로 애써 예술을 정당화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혹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소명을 왜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는 그의 부르심이 기능이거나 역할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체(potential)이다. 인간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길로, 혹은 보다 못한 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현대 예술이 종종 그러하듯이 예술을 하나의 종교로 삼는 유미주의(唯美主義)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는 합당치 못한 자리에 예술을 위치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는 18세기 예술이 보인 바와 같이 매우 파괴적일 뿐이다. 따라서 예술은 어떤 실재에 근거한다고 하여 우리의 정신,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 인생과 실재에 접근하는 법 등을 나타낸다. 특히 그의 예술가 자질에 관한 다음 항목은 상기할 여지가 많다. 첫째는 재능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같이 각기 부여된 것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가 주안점이다. 이 재능은 특수하게 어떤 예술가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져 있다고 본다. 둘째로 지성인데, 이는 상황을 분석하여 올바른 형식을 찾아내고, 예술의 복잡한 것들을 다 숙달하며,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자질을 가리킨다. 셋째는 장인정신이다. 이는 예술가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서 종종 이것에 의하여 예술가의 명성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예술가들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명성과 부에 관심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은 그 예술의 잣대일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될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류를 타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는 까닭이다. 넷째로는 근면이다. 영원한 예술품이란 이 근면의 결과일 경우가 많다. 재능이나 감각 등의 이른바 천재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

지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근면성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 예술가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통해서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작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 상태와 삶의 우선순위는 매우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자신이 유일한 길(the Way)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와 함께 걷는 것이 깊은 의미에서 성경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기독교인 예술가의 본연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Ⅲ.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저자의 논의를 대하면서 기독교인 예술가가 단지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전도의 일환으로 삼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술의 궁극적 도달점이 인간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 양식과 삶의 태도는 명확해진다. 구체적 기쁨의 자리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그는 삶 전체를 통하여 넘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 예술가의 자리와 역할을 논의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소책자는 이러한 점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전인격적인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반드시 진리를 행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다. 독자 제위의 일독을 권하면서 글을 마친다.